

장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일상 오브제 도입에 관한 조형적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정 주

일상 오브제 도입에 관한 조형적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장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정 주

인 준 서

이정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20세기 이후 현대미술의 전개를 주도하는 양식 가운데 주요한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오브제(Objet) 양식 즉, ‘오브제’의 도입이다.

현대미술에 있어서 오브제는 일상과 미술의 경계를 허물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더욱 진화하여 소비와 욕망, 유희, 소통의 정서를 환기시킴으로써, 예술의 영역을 다양하고 폭넓게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 오브제는 항시 사용 가능한 조형언어가 되었으며, 차용되고 수집된 오브제들의 결합, 전환은 예술을 작가와 관객과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적극적 소통수단이 되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일상적 오브제의 상이한 결합을 통해 일상의 하찮음, 사소한 존재의 고찰을 조형화한 본인의 작품세계를 약술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작품에 대한 표현 방법, 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反復)과 전위(轉位)를 통한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오브제와 오브제의 결합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작품 분석을 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할 과제를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3
1) 현대미술에서의 오브제(Object)	3
2) 일상 오브제	5
2. 작품의 조형적 표현방법	7
1) 작품의 기본 형태	7
2) 작품의 재료	8
3) 오브제와 오브제의 결합	8
3. 작품분석	10
III. 결론	25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反轉-I, 2004. 스틸, 비닐, 40×9×120cm. 11
- 【작품 2】 反轉-II, 2004. 스틸, 브론즈, 31×27×17.5cm. 13
- 【작품 3】 反轉-III, 2004. 스틸, 브론즈, 37×31×28cm. 15
- 【작품 4】 反轉-IV, 2004. 스틸, 오브제, 사진, 152×5×75cm. 17
- 【작품 5】 反轉-V, 2004. 스틸, 오브제, 11×10×88cm. 19
- 【작품 6】 反轉-VI, 2004. 스틸, 오브제, 92×3×25cm. 21
- 【작품 7】 反轉-VII, 2004. 스틸, 브론즈, 35×35×60cm. 23

I. 서론

현대미술에 있어서 혁신적 혁명을 꼽으라면 아마도 오브제의 활용일 것이다. 이는 예술개념 자체를 바꿔 놓은 결과를 초래시켰으며, 미술사에서도 매우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큐비즘, 다다, 초현실주의, 누보레알리즘¹⁾, 팝아트, 키네틱 아트에서 현대 테크놀러지 오브제에 이르기 까지 오브제의 미술사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오브제는 예술 작품의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시키며,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물이 예술가에게 작품으로 선택될 때, 그 사물은 우리에게 색다른 의미를 띤 것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일상적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엉뚱한 곳에 배치될 때, 우리가 친숙하게 여겨 그냥 지나치던 그 대상이 어떤 낯선 것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적 현실 뒤로 또 하나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주위에 흔히 널려있는 못을 접하면서 ‘못을 박다’라는 행위의 동작-어떤 사물과 사물을 붙이기 위해서, 단지 박는 쾌감을 위한 놀이로서, 무언가를 고정시키기 위함으로-을 못의 고유 기능 ‘붙이다. 고정시키다.’ 이러한 조건, 수단에 의해 구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에 의해 선택되어진 못이라는 오브제는 단지 수단에 불과한 사소한 사물로의 존재에서 탈피, 전위함으로써,

1) 누보레알리즘(Nouve-Realisme):공업제품의 단편이나 일상적인 오브제를 거의 그대로 전시함으로써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라는 새롭고 적극적인 방법을 추구하였다. 즉, 공업화된 사회를 현대의 자연으로 보아, 그 속에서 생산되는 물체를 무매개적(無媒介的)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루이 프라텔, 「현대미술」, 김소라 역,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96

못과 상관되어지거나 비상관적인 일상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일상의 사소함, 하찮음의 존재에 대한 재인식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반복, 전위’의 표현 방법으로 조형화 하였다.

본고의 연구 내용 및 방법으로 현대미술에서의 오브제, 일상 오브제에 관해 살펴보고, 본인 작품의 기본 형태 및 재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소함, 하찮음의 존재인 못과 연관, 비연관된 일상적 사물과 사물 즉, 오브제와 오브제의 관계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현대미술에서의 오브제(Object)

20세기 이후 현대미술의 전개를 주도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오브제²⁾의 도입은 현대미술의 중요한 특징을 일구어 왔다.

일상의 사물이 미술에 도입된 가장 초창기의 사례는 입체파 작가들이 창시한 콜라주(Collage)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가들은 대상물의 재현을 다루는 2차원의 평면에 실제 사물을 끌어 들여 평면의 환영(幻影)과 실제 사물을 통합하였으며, 평범한 물건들을 화면에 끌어들이므로써 예술과 생활의 구분을 파기하였다.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던 미술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그것을 파기하고자 한 이러한 시도는 일상생활 속의 통속적인 사물들을 과감히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오브제의 도입은 미래주의와 러시아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 다다운동에 참여했던 작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어, 사회풍자나 기성체제에 저항하는 도

2) 오브제(Object)의 어원은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어의 오브젝트(object)이고 프랑스어는 오브제(objet)이며, 일반적으로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브제의 일반적 사전적 의미로는 "보여 지거나 만져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주체(subject)가 인지할 수 있는 물질적 또는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홍구,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도서출판 재원), 2001, p.186

구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전쟁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구시대의 사회문화에 반발했던 다다이스트들은 그러한 태도를 표명하기 위해 새로운 조형어법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회화나 조각의 전통적인 방법을 거부하였으며, 생활에 존재하는 하찮은 것들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기존 체제가 보여주는 사회문화에 대한 야유나 풍자 등 개념적 관심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던 이들은 예술개념 자체를 재고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변기를 미술관에 들여놓아 기성품을 작품으로 '제시'하였던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 1887~1978)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다다의 운동을 정신적으로 이어받은 네오다다³⁾이스트들은 조형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뒤상이 제기한 문제를 한층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면서 새로운 시각언어를 창출해 냈다. 또한 이 시기 네오다다의 유럽판인 누보레알리즘 작가들은 대량생산된 제품의 폐기물들을 집적한 방법을 통해 산업사회의 화석화한 비가(悲歌)를 노래했으며, 공업화한 사회를 새로운 대상으로 보고 그로부터 나온 사물을 미적대상물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술의 역사는 다시 한 번 뒤상으로 회귀하게 되는데, 가장 물질적인 요소 또는 본질개념에 역점을 두고, 기본적 형태를 취하며 순수한 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미니멀리즘은 작품의 준거를 작품자체로, 사물자체를 작품으로 만듦으로써 미술 개념의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고자 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도입된 일상 오브제들 또한 미니멀리즘의 본질적인 물질의 요소와 동일한 단위의 규칙적 반복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일상 사물 자체를 작품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 즉, 사물 자체를 작품에 직접

3) 네오다다(Neo-Dada): 기성의 가치체계를 부정하여 일상적인 오브제나 오브제의 파편을 주위에서 떼내어 작품에 도입하였으며, 반예술적 활동을 그대로 창조행위로 전환하고, 오브제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성가치의 부정을 목적으로 파괴와 반항에 치중한 다다와 차이점이 있다.

등장시킨 뒤상의 고전적 유형의 오브제와는 달리 본 작품은 본인에 의해 재현된 오브제 즉, 제작되어진 오브제를 도입하였다.

이렇듯 미니멀리즘 이후, 현대의 테크놀러지에 이르기까지 오브제의 영역과 개념은 거의 무제한 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오브제 도입의 시도는 미술 영역 간의 경계가 어떤 지배적인 흐름도 없이 되어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평범하고 시시해 보이기까지 한 사물마저도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이르렀다. 즉, 오늘날 오브제의 사용은 일상생활과 예술의 합치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인의 작품 또한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사물, 오브제를 통하여, 일상의 익숙함으로 인한 우리의 기억 속에 사소하고 하찮게 여겨지던 일상 사물에 대한 본질, 존재에 대한 재인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일상 오브제

현대사회는 소비문화의 확산, 물질의 풍요로 인해 사물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무한한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변 사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한 일상⁴⁾이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존재하는 사물의 이미지는 오랜 세월 거듭될수록 사물의 기능, 역할에 맞추어 관념적, 본질적으로 인식된다.

일상의 사물들은 우리에게 미적 대상으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성이 강한 도구 자체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되었을 때부터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

4) '일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스페테 투른(H. P. Thurn)에 의하면, 어원학적으로 볼 때 '일상'(Alltag)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 부터 유래하는데, 그 뜻은 매일 '반복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문의 '日常'(일상), 늘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란 뜻과 일맥상통한다. 최중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p.171

산된 사물들은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나면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이처럼 본래 생산되었을 때부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물들은 자체의 목적성이 상실되면 아무런 가치를 얻지 못한 채 등한시된다.

이렇듯 일상적으로 늘 같은 곳, 같은 상황 속에 존재하며 우리에게 인식되지 못하던 일상의 사소한 사물을 본인의 조형적 행위를 통해 작품에 도입시킴으로써,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물(주체)과 연관, 비연관적 사물들(객체)과의 결합을 통해 주체적 사물의 기능 자체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보잘 것 없는 일상적 사물의 고유한 체험에서의 일상적 느낌의 기능을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강조, 오히려 전위시킴으로써 사소한 사물의 존재에 대한 외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과거,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바닥에 못이 박힌 적이 있었다. 그 때 처음으로 못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못의 박힘이 단지 ‘붙이다. 고정시키다.’는 한정되고 고정된 기능만의 존재가 아닌 무언가를 ‘박다’는 그 자체, 본질의 기능에서 비롯됨을 인지하게 되었다. 즉, 항상 사소하고 하찮게만 여겨졌던 ‘못’이란 존재가 무언가를 위한 사물이 아닌, 사물 그 자체의 존재로 다가옴으로써, 본인의 흔하고 익숙해져 버린 일상적 사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본인의 경험은 ‘못’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못과 연관, 비연관적인 일상 사물, 오브제들을 본인의 작품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평범한 사고에서 오는 단조로움의 일상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일상의 사물들이 예술로 흡수됨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의 사물들이 작품의 영역 속으로 끌어 들여지면서 관람객과 새로운 언어로서 상호 소통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작품의 조형적 표현방법

1) 작품의 기본 형태

기존 못의 종류로는 재료에 따라 나무못(木釘), 대못(竹釘), 쇠못(鐵釘)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못은 철제 둥근 못으로, 쇠를 두들겨 각형(角形)으로 만든 재래식의 못과 구별하기 위하여 둥근못(洋釘)이라고도 한다. 쇠못은 철, 구리, 황동을 재료로 제작하며, 그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다.⁵⁾ 또한 머리, 몸통, 끝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머리지름, 몸통지름, 날끝부분, 전체길이의 다양한 비례로 상품화되어 있다.

본인 작품에서 사용한 못은 가장 일반적인 쇠못으로 둥근못의 형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못과 연관되어진 오브제에 따라 실제 못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으며, 못이라는 이미지의 강조를 위해 못과 결합된 오브제의 크기에 따라 강철로 못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실제 못의 사용과 강철로 확대, 제작 되어진 못은 못의 쓰임새와 연관, 비연관되어지는 사물의 채택으로 이어졌으며, '못이 박히다'라는 행위의 흔적을 통해 못과 상관적, 비상관적인 일상 오브제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일정한 간격의 동일한 반복적 박힘의 형태를 띠고 있다.

5) 김민수, 어효선 공편, 「새국어사전」, 교학사, 1987

2) 작품의 재료

본인이 사용하는 재료에는 어떤 본격적인 ‘예술적 재료’가 없다. ‘못 박다’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액자, 그릇, TV, 가방, 거울 등 ‘나의 하찮은 개인적 일상에 널려 있던’ 달리 표현하자면 본인과 지극히 평범하게 접하던 오브제 위주의 재료를 선택, 제작하였다.

못을 바탕으로 선택되어진 일상의 오브제들은 지극히 못이라는 성질,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단지 존재되어진다. 그러한 이유로 청동, 비닐, 아크릴, 유리 등으로 고전적 유형의 레디메이드(Ready-Made)가 아닌 모조레디메이드⁶⁾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이전의 평범하고 흔한 사물 자체의 일반성을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게 의도함으로써,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사물로의 보여짐을 위한 시각적 효과이며, 이러한 재료를 통하여 새롭게 인식된 사물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탈되어 사물 본연적 존재의 부각을 의도하였다.

3) 오브제와 오브제의 결합

미술작품에 있어서 일반적 오브제의 양상으로 오브제와 오브제 또는 오브제와 이미지와의 결합이다. 이때의 오브제는 표현의 수단이 된다. 표현수단으로서의 오브제는 주체와 객체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되며, 이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오브제의 양상이다.⁷⁾

6)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 앤디 워홀 (Andy Warhol, 1928~1987)의 <브릴로 박스>가 그 시초이며, 실제 박스가 아닌 실제의 그려진 이미지의 레디메이드를 일컫는 말로써, 앤디 워홀의 원작 복제의 모방은 하이퍼리얼리즘의 선구가 되었다.

여기서의 오브제는 사물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떼어놓아 그 사물이 가지는 기능이나 일반적인 이미지, 역할에서 일탈시켜 다른 문맥에 놓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기능상실의 오브제와 고유의 기능을 지닌 오브제의 이중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르셀 뒤샹의 사물의 본래의 기능, 용도 또는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그 자체의 독립성만을 강조한 오브제들의 이미지 결합에 관한 해석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주체적 사물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객체의 사물의 용도와 기능상실을 의도하였다.

미니멀리즘적 어법인 동일한 단위의 규칙적 반복 형태와 전위의 전략으로 못이라는 일상적 사물을 선택, 그와 연관, 비연관된 또 다른 일상적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목적의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던 못의 기능을 '목적' 그 자체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7) 박덕흠 외, 「현대미술의 기초 개념」, 재원, 2001, p.186

3. 작품분석

본인의 작품은 〈反轉〉이라는 제목으로 ‘일의 형세가 뒤바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소하고 하찮은 존재의 재인식을 일상적 사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진리 즉, 정신의 독재에 대한 반란의 미학을 본인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일종의 하찮음, 사소함을 일상의 오브제와 오브제의 결합을 통해 강조, 부각시킴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관습, 상식, 고착화된 의식들을 뒤집어 감추어진 일상의 진실 혹은 거짓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찮음, 사소함이 도발과 저항 체계의 범령에 대한 위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하찮음만큼 그 오브제들은 더욱 이해 불가능하고 기이하게 다가 올 것이다. 이렇듯 이데아와 같은 완전무결함의 표현이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거하는 하찮은 인식의 세계가 바로 본인 작품 표현의 출발점인 것이다.



【작품 1】 反轉-I, 2004. 스틸, 비닐, 40×9×120cm.

【작품 1】 反轉 - I

크 기 : 40 × 9 × 120cm

재 료 : 스틸, 비닐

제작년도 : 2004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저마다 각기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물체 자신만의 성질, 물성일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의 주체, 못이란 오브제는 지극히 비예술적이며 일상적인 즉, 하찮은 외양을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현실에 잠입해서 그 내부에서 작동하거나, 현실의 일부가 되어 자신의 존재를 표출한다.

이러한 존재의 주체적 부각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방의 재질을 비닐로 선택하여 제작하였으며, 스틸로 제작된 여섯 개의 못은 일정한 간격의 동일한 반복으로 표현되었다.



【작품 2】 反轉-Ⅱ, 2004. 스틸, 브론즈, 31×27×17.5cm.

【작품 2】 反轉-Ⅱ

크 기 : 31 × 27 × 17.5cm

재 료 : 스틸, 브론즈

제작년도 : 2004년

각기 다른(과장) 형식을 지닌 미학적 등가물이 서로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것.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것. 그것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형식들로부터 파생된 것이지만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연관된 일상적 오브제의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주체, 존재감의 부각을 위해 생활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릇에 일정한 간격의 동일한 반복으로 못을 설치하였다. 또한 그릇에 광을 내어 그릇이라는 존재의 부각과 그것 자체의 기능이 못에 의해 상실됨으로써 못이라는 오브제의 기능,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3】 反轉-III, 2004. 스틸, 브론즈, 37×31×28cm.

【작품 3】 反轉-Ⅲ

크 기 : 37 × 31 × 28cm

재 료 : 스틸, 브론즈

제작년도 : 2004년

TV의 브라운관에 광을 내어 들여다보는 이들의 형상에도 못이 박힌 듯한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좌대 또한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선택하였으며, 그 위에 작품을 올려놓음으로써 일상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소한 일상 사물의 고착화된 의식의 일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反轉-IV, 2004. 스틸, 오브제, 사진, 152×5×75cm.

【작품 4】 反轉-IV

크 기 : 152 × 5 × 75cm

재 료 : 스틸, 오브제, 사진

제작년도 : 2004년

액자가 벽이란 공간에 부착되기 위해서는 벽에 설치되어진 어떤 사물이 필요하다. 그 필요에 의해 설치되어진 최소한의 기능이 못일 것이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사물, 못이라는 존재가 그것 자체에 의해서가 아닌,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물이 설치되어버린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 사소하고 하찮게만 여겨졌던 사물들의 존재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사진은 흑백으로 인화하여 정면과 뒷면을 검은색 테두리 액자 속에 넣음으로써 영정 사진과 같은 무거운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5】 反轉-V, 2004. 스틸, 오브제, 11×10×88cm.

【작품 5】 反轉-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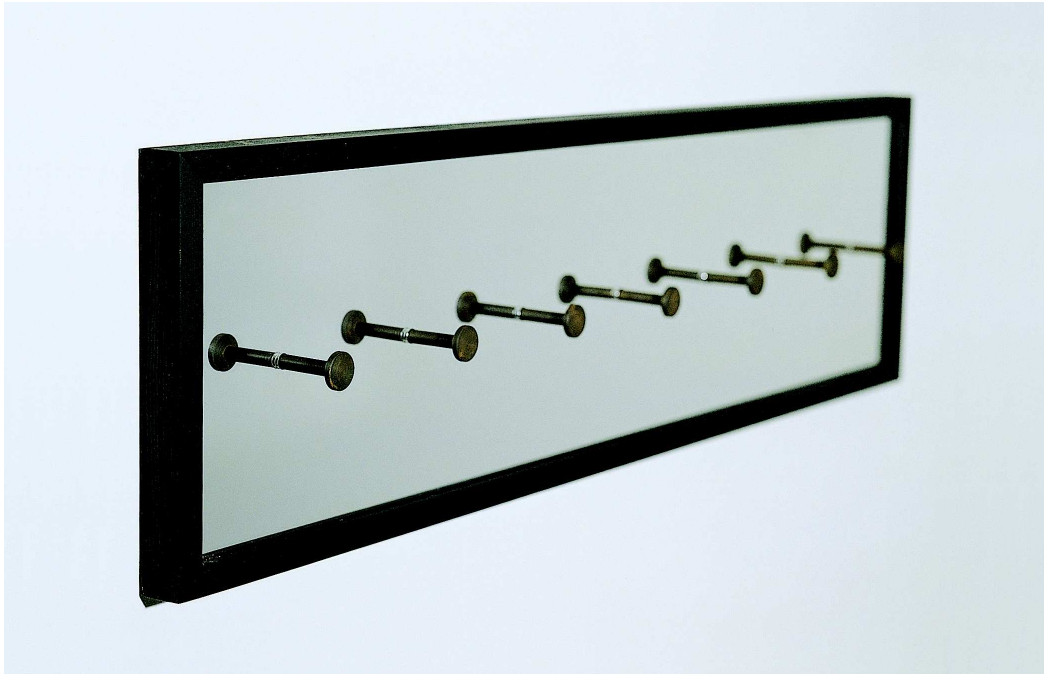
크 기 : 11 × 10 × 88cm

재 료 : 스틸, 오브제

제작년도 : 2004년

실제 도자기 컵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는 관계로 구멍을 뚫은 상태의 컵을 제작하여 못을 박았다. 또한 컵의 색상을 흰색으로 함으로써 못의 짙은 검은색과의 대조를 의도화하여 못의 존재, 주체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 작품 또한 갤러리 관계상 가벽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작품 6】 反轉-VI, 2004. 스틸, 오브제, 92×3×25cm.

【작품 6】 反轉-VI

크 기 : 92 × 3 × 25cm

재 료 : 스틸, 오브제

제작년도 : 2004년

【작품 2】, 【작품 3】와 같은 맥락의 비치는 오브제, 거울을 선택하여 제작하였다. 여기서의 거울은 아크릴 은경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반 유리 거울에 비해 상의 맺힘에 있어 굴곡이 생기며, 표면의 굽힘이 심하다. 이러한 특성은 못의 반란이 실재가 아닌 본인의 상상에 의해 드러난 사소함의 외침이며, 본성임을 작품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추어짐은 작품을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에 못이 박힌 듯한 효과를 자아냄으로써 못이라는 존재, 주체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7】 反轉-VII, 2004. 스틸, 브론즈, 35×35×60cm.

【작품 7】 反轉-VII

크 기 : 35 × 35 × 60cm

재 료 : 스틸, 브론즈

제작년도 : 2004년

이 작품에서의 못은 의자의 상판과 다리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자’라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시킴으로써, 못 그 자체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재질에 있어 브론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혼한 철로 제작되어진 못과의 재료상의 대조를 통해 하찮고 사소한 사물의 존재에 대한 재인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Ⅲ. 결 론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물이 예술가에게 작품으로 ‘선택’될 때, 그 사물은 우리에게 색다른 의미를 띤 것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일상적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엉뚱한 곳에 배치될 때, 우리가 친숙하게 여겨 그냥 지나치던 그 대상이 어떤 낯선 것으로 다가오면서, 그 동안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상 사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맥락에서 떠나 의외의 장소에 위치하게 만들고, 낯설고 기이한 만남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일상의 사소하고 하찮은 존재를 본인 작품을 통해 제시하여,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충격을 안겨주고자 하였다. 즉, 사물에 대한 일반적 사고를 뒤집는 행위를 통해 평범하고 단순한 것으로부터의 일탈의 쾌감과 조형적으로 의도된 낯설음이 또 다른 ‘미감’으로 보여짐으로써, 좀 더 색다르고 확장된 개념의 표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이 선택한 오브제인 못, 그와 연관되어진 오브제들과의 결합은 이러한 낯설음에 의한 이면적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적 일상에 널려있던 사소하고 하찮은 사물의 존재를 기존의 고전적 유형의 레디메이드 형식이 아닌 본인이 직접 제작, 의뢰한 레디메이드 모조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미니멀리즘적 어법인 동일한 단위의 규칙적 반복의 형태와 전위의 전략을 본인의 작품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인은 이번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소재와 재료, 작품 설치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다양한 표현 방법적인 연구를 모색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본인의 창작의욕을 일깨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태희, 「현대미술의 또 다른 지평」, 시공사, 2000
- 강홍구, 「원작 없는 그림들」, 아트북스, 2002
- 김용석, 「일상의 발견」, 푸른 숲, 2002
- 박덕흠 외, 「현대미술의 기초 개념」, 재원, 2001
-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1999
-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고재, 1998
- 최광진, 「현대미술의 전략」, 아트북스, 2004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이정훈, 김광우 역, 미술문화, 2004
- 앙리 르페로,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主流·一念, 1995
- 이브 미쇼, 「예술의 위기」, 하태환 역, 동문선, 1997
- 로버트 앳킨스, 「알기 쉬운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박진석 역, 시공사, 1994
- 로제 보르디에, 「현대미술과 오브제」, 김현주 역, 1999
- 린다 허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아트북스, 2004
- 장루이 프라텔, 「현대미술」, 김소라 역, 생각의 나무, 2004
- 줄리엄 프리먼, 「미술의 유혹」, 최윤아 역, 예담, 1999
- 팸미침, 줄리셀던, 「현대미술의 이해」, 이민재, 황보화 역, 시공아트, 2004
- 월간미술, June 2004

ABSTRACT

A Formative Study on Introduction of Daily Objet

- Centering on a Personal Product -

Lee Jung Joo
Sculpture Major
Dept. of Plastic Ar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fter 21st century, one of the essential methodology which had been leading a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 is to introduce 'Objet' style.

In Contemporary Art, Objet doesn't only collapse the boundary between routine & art, but also arouses people's attention of consumption, desire, amusement and communication, evolving in current society. Also it expanded the field of art variously and are showing the infinite possibility in future.

The daily Objet finally got fixed as a colloquial formative language, so the borrowed and collected Objets was combined together and converted. It became an active communication method to create a new relationship among artist, audience and society.

This study combined a large variety of daily objets and described a personal work contemplating of trifle routine and insignificant beings. It is composed of 3 chapters.

In Chapter 1, it described its object and method.

In Chapter 2, it described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expression of the work and objects & their combination, which consi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through their repetition and transposition, and add a comment on individual work to the end.

In Chapter 3, it got through with the contents of this study and described the future affairs.